

오륙도 칼럼



소로마

새 주택단지가 생기면 재빠르게 들어서는 업소가 술집, 당구장, 미장원 등등이다.

이런 정황은 세계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덧붙이자면 PC방, 안마시술소...

많고도 많다. 그런데 반드시 초등학교, 공중변소, 어린이 놀이터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해졌음은 누

구나 다 안다. 이른바 국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이라서 그렇다.

여타 문화시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잡 요상하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는 있으니 행정책임자의 의지로 이루어진다.

우리 남구에 <부산예술회관>이 들어선 일은 과정에서 '호박이 텅 굴 채 떨어진' 격이다.

전국적인 탐방객이 몰려오고 기자단이 상주하고, 장사가 잘되고, 세수(稅收)가 느니, 각처에서 이런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느라 눈에 불을 켜고, 소매를 걷어 붙이고 설쳐댄다.

알충달충한 기념비도 세우고, 어느 고을에는 하다못해 엄청난 양물(陽物)도 깎아 세우고 요란한 홍보

물을 뿌린다. 네비게이션 업체도 한몫 잡을 게 확실하다. 새 명소를 반드시 놓아야 하나니까.

남구는 문화예술벨트를 일찍이 조성했었다. 우선 대학으로 배경, 경성, 동명, 외대에도, 2년제 예술대, 신학교를 보태면...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거기에도 박물관, 문화회관, 유엔기념관, 평화공원...

이른바 남구는 부산의 문화예술 총 본산으로 손색이 없다.

르네상스를 불지핀 데는 지중해안의 피렌체라는 남구(南畝)의 작은 고을인데 우리 남구(南區)는 부산의 문예부흥이 아니라 한반도의 르네상스 진원지가 될게다. 전통예술과 현대를 아우르는 폭과 깊이가

어마어마한 새물결을 일으킬 기운이 감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은 아주 답라졌다는 사실이다.

수년 전에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와 관련된 건물을 짓는데 주민들이 결사 반대했다.

입지 선정에 애를 먹은 단체장은 하루 지자체에 땅이 있어 떠맡겼다. 거기에서는 터는 내놓고 집은 지을 수 있으나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뭐다해서 톨먹는 하마가 아니라 동전 집어 삼키는 불가사리라 여기니 반길 리가 없지 않는가.

명치는 아방공 수준인데 사시장 철 서터가 내려져 있으니 그야말로 사냥누각이고 전시효과를 노린 예

산남비 소리 듣기에 딱 맞다고 폄하할만하다.

숨가쁘게 뛰어와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버는 관인데 문화니 예술이 하는 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란다.

그러나 남구에 새로 들어선 부산 예술회관은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재가 아니다. 남구민의 문화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래서 부산예술회관은 주민들이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루리라 예상하니 주차 시설이 어떠한지 괜히 걱정이다.

거듭 말하지만 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수준이 대단히 높다. 일례를 든다면 문화회관에 유도자를 밀고 와 오페라를 감상하고, 마당

에는 사물놀이가 한창인데 추미새를 낚는 사람은 남구에 사는 어르신네들이다. 그래서 꾀들은 더욱 신명이 나나보다.

술집을 걸어 나오면 시화전이 여러 날째 열리고 있는데 정작 남구 문인협회 사람들은 번호표를 늦게 받았는지 주민인데도 제때에 시화를 걸지 못해 판대에서 전을 벌인다.

이기대 자연공원이나 황령산 바람고개로 옮겨 벌인지도 이태를 넘겼다. 문현동 청년회에서도 산상시화전을 연다. 남구에서는 바닷가나 산모퉁이에서나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를 하면 장터처럼 인파로 북적거린다. 다만 비가 오면 애를 먹는 다.

그러니 부산예술회관 같은 덩그러니 집이 들어섰으니 그런 격정을 안해도 되겠다.

전 남구문인협회장·아동문학가
soroma@hanmail.net

신선대

<182>

채 규중



선운의 1000자 지혜

세 가지 원망

어린 아이들의 허황된 꿈만은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을 좇아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 두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묵묵히 걸아가는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가지도 않고 주저앉는 사람, 이것이 훌륭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이다. 존경과 사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남모르게 부단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처음부터 감나무에 오를 생각을 않고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 입 벌리고 있는 꼴이 아닌가?

하늘은 정말 공평하다. 어느 누구나에게 그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안겨 주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만 하려는 엉뚱한 것을 준다. 그런데 사랑과 존경도 중요하지만 살아 가면서 남으로부터 욕이나 원망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호구(狐丘)에 사는 어떤 노인이 초(楚)나라 대신 손숙오(孫叔敖)에게 말했다. "사람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세 가지 원망(怨望)이 있는데 이 원망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 세 가지 원망이 어떤 것이냐고 손숙오가 묻자 노인이 이렇게 답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시샘을 당하고 미움을 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망이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일하는 사람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윗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둘째 원망이지요. 또한 출세하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의심과 미움을 받기 때문인데 이것이 세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을 조금 가졌다 하면 거들먹거리고 뽐내고 남을 무시하고 짓밟으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혼자자 아닌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가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을까? 꽃샘추위만큼 싸늘한 요즘 봄은 언제쯤 올까? 번역문학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도로보수 시급해

대연초등학교에서 남구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다보면 횡단보도 건너 식당 근처 도로에 직경 15~20cm 가량 되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부서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로 아이들의 작은 발이 구멍에 빠지거나 한다면 어쩌나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왕래가 잦아 이들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서는 하루빨리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시설을 보강해 주었으면 한다.

인현아(babara)

캠퍼스 새봄 정치 물신

새봄을 맞아 도심이 한층 밝아졌다. 남구는 특히 대학교가 많아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더욱더 봄이 빨리 오는 듯 하다. 얼마 전 포 대학 교정을 찾은 적이 있다. 새내기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하는 광경을 바라보며 잠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해서 기분 좋았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고지대 제설장비 비치에 최선

남구지역에도 폭설대책을 마련하지는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용호4동 장수정 남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연재해의 양상을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로싱(문자, 음성전송)을 활용 취약지 주민에게 재해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4일 폭설 때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 우리구 전직원, 유관기관, 주민 등 1,200여명을 동원하여 주간산도로 및 마을버스 통행로에

대하여 우선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제설기 5대, 살포기 3대, 덤프 트럭 2대, 1톤 포터 28대, 열화칼슘 771포, 모래28m, 기타 제설장비 5종 2,000여점을 제설작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의견을 주신 장수정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는 각종 재난에 대비 장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폭설에 대비한 고지대 제설장비(열화칼슘, 모래 등) 비치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동강화로 재난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난안전과·김상훈)

통기타 교실 열자

최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통기타 가수들이 소개 되면서 통기타 열풍이 불고 있다. 낭만적인 선율을 사랑받고 있는 통기타는 70~80년대 문화의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큰 인기를 모았었다.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취를 감춘 듯하다가 전자음악에 열증을 느낀 대중들이 다시 찾으면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기타 교실을 확대 운영해 줄

희전교차로 홍보 실시

희전교차로 지속 홍보를 당부한다는 용호4동 정혜문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희전교차로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섬 내 녹지공간을 효율적이면서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구청 교통행정과(☎607-45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박경도)

독자의詩

허수아비

싸늘하게 귀밑을 스치는 大氣는

아직도 세밀임을 알리고

청아하고 고결한 蒼空은

海東의 禽獸山이 分明한데

노랑머리, 빨강머리, 흰머리, 검은머리 등등...

多文化 人波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都市 네거리

높고 낮은 apt백들은

키재기를 하는데

길 잃은 허수아비야!

너는 아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파트 잿빛벽에 땀그라니 걸렸느냐!

호남평야, 김해평야 등등...

네가 설 곳은 무던히도 많건만

現代病과 싸우다 싸우다가

지쳐버린 五尺短軀는

처량한 허수의 애비가 되어

都會의 apt벽에 장식품이 되었구나!!



박철

시인·용호1동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11년 3월 16일~3월 31일

■납부방법: 시중은행(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포함) 및 인터넷·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납부: http://etax.busan.go.kr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이용시간: 09: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한, 삼성, 롯데, 현대)

※ 가상계좌납부

•이용시간: 07:00~22:00(공휴일 포함)

※ 문의: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자동차: 607-4386, 시설물: 607-4384)

예산남비 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부산 남구청은 「예산남비 신고센터」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주변에 예산을 남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 절감·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적극 제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분에게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합니다.

☞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10%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

동명	접종일시	동명	접종일시
대연1동	4. 21. 11:00~12:00	용당동	4. 14. 13:00~14:00
대연2동	4. 21. 15:00~16:00	감만1동	4. 19. 13:00~14:00
대연3동	4. 19. 11:00~12:00	감만2동	4. 20. 13:00~14:00
대연4동	4. 20. 11:00~12:00	유암1동	4. 13. 11:00~12:00
대연5동	4. 22. 11:00~12:00	유암2동	4. 18. 11:00~12:00
대연6동	4. 22. 15:00~16:00	문현1동	4. 15. 11:00~12:00
용호1동	4. 12. 10:00~11:00	문현2동	4. 18. 13:00~14:00
용호2동	4. 19. 11:00~12:00	문현3동	4. 15. 11:00~12:00
용호3동	4. 20. 11:00~12:00	문현4동	4. 14. 11:00~12:00
용호4동	4. 15. 13:00~14:00	문의: 지역경제과(☎ 607-4485)	

남구 소년소녀한창단 단원모집

■모집기간: 2011. 3. 21.(월)~4. 5.(화)

■응시자격: 남구에 주소를 두거나 남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3~5학년

■교부 및 접수처: 남구 문화체육과 (단, 근무시간중에 한함)

■공개오디션: 2011. 4. 9(토) 13:00 남구보건소 4층 대강당

■문의: 문화체육과 청소년보호담당 (☎ 607-4372)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건설행정담당·수필가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